**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나라주일:** 예배 후 나라별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ㆍ말씀카드:** 가족 및 지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실 분은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세요.

**ㆍ교회수첩 배부:** 교회수첩 필요하신 분은 더가져가세요.

**ㆍBible12 제7강 ‘시가서’:** 오늘 예배 후 Teestube 윗층

**ㆍ여선교회 신구임원 오찬:** 1월 20일(월) 11시 손교훈 목사 집

**ㆍ오병이어 저금통:** 애찬 때마다 잊지 마시고 사랑을 함께 나누세요.

**ㆍ설날:** 1월 25일(토)

**ㆍ생일:** 신일수, 김성희, 이은지, 송아이

**◆말씀일기 일정**

일/창14:1-12 월/창14:13-24 화/창15:1-21 수/창16:1-16

목/창17:1-27 금/창18:1-15 토/창18:16-33 일/창19:1-1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2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월 19일** | **1월 26일** | **2월 2일** | **2월 9일** |
| **예배기도** | 김영희 | 박희영 | 정기승 | 백능현 |
| **말씀일기** | 강일구 | 김종권 | 정규선 | 김학순 |
| **안내위원** | 한상철, 예배부 | | 정기승, 예배부 | |
| **헌금위원** | 나지홍, 박성희 | | 강일구, 박종희 | |
| **애찬봉사** | 나라주일 | 밥상 다섯 | 밥상 여섯 | 밥상 일곱 |

**37-3호 2020년 1월 19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21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30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545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 김영희 권사  강일구 안수집사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사43:14-21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550장 ………………….…….………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 함 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

◀ **강일구 집사의 말씀일기-창세기 12장 18절** ▶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창12: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꾸짖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람을 이방민족의 왕이 질책하고 내쫒았다. 아브람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그가 꾸짖는 내용에 뭐라 할 수가 없었다.

최근의 한국상황은 ‘바로’를 ‘세상’으로, ‘아브람’을 ‘교회’로 바꾸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세상이 교회를 질책하고 멸시하고 있고 교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좀 특이하신 분의 망언이라고, 어느 교단 일부의 문제라고 핑계하기에는 그 일부의 일들이 너무 커져버렸다. 이제는 그나마 상식적이고, 선한 일을 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나 신도들이 있다고 세상은 믿지를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의 모습은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일가를 떠난 그가 맞나 싶다. 그런데 이게 아브람이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브람이 이 일 후에 믿음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브람은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이처럼 지금의 교회도 더 건강해 질거라 믿는다. 세상의 질타와 멸시에도 꿀먹은 벙어리일 수 밖에 없는 힘없는 모습을 벗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구한다.

**◈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 협력하는 곳 ◈**

▶스펙트럼 교회 ▶라인란트 지역 외국인교회들(이광열 목사)

▶'겨자씨' 모임(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

▶NRW 평신도연합회 ▶디아코니 협력 후원

▶유럽 기독교교육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연합 캠프(JC)

▶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이명선 총무)

▶유럽 코스타(청년수련회) ▶유럽크리스찬 신문(이창배 목사*)*

▶예장 유럽선교회 ▶장학 지원 ▶북한 선교

▶굶주린 이웃 돕기(케냐 총게노 고아원, 스타여고, 이은용 선교사)

▶기타 구제 사업 ▶선교관 기금 마련